

# 부산,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한수원, 3곳에서 5MW 전력 생산 ... 2010년까지 1400억원 투자 20MW

2008년 부산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잇따라 들어선다.

부산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3곳에 5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3월24일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대상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구 장림하수처리장)의 처리장과 사직야구장 주차장, 시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옥외 주차장 등 3곳이다.

강변사업소의 처리장에는 3MW, 사직야구장과 홈플러스 주차장에는 각 1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세워진다.

태양광 발전소는 부산시가 제공한 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이 310억원 가량을 들여 발전설비를 설치해 15년간 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부산에 상업발전이 가능한 1MW급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은 처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는 3MW급인데 부산에서 건설되는 것도 최대 수준과 맞먹는 규모이고 대도시에 대규모로 건설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곳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며 국제입찰을 통해 실시설계를 마친 뒤 착공해 2008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7년 7월 부산시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까지 1400억원을 들여 총 2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2008년 첫 사업으로 3곳에 5MW 규모로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부산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산시 청사 3층의 저층부 옥상에도 50kW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2008년 설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24>